



한가위에 드리는
가 정 예 배



2006년 10월 6일 오전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청 파 교 회

추석 아침 가정 예배 순서

예배초대 -----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136:1-3 -----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 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같이

교독문 ----- 64번 -----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기 도 ----- 말은이

성 경 ----- 갈라디아서 5:16-23 ----- 인도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과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표준새번역)

설 교 (말씀 묵상) ----- 아름다운 열매 ----- 가족중

찬 송 ----- 460. 지금까지 지내 온 것 -----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 예배 전 기도자와 설교자를 미리 선정합니다.
2. 예배는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인도합니다.
3. 가족중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설교 전에 마련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함께 나눌만한 일화 등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4. 예배 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 마디씩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묵상 : 아름다운 열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 살아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과 들의 못 생명들이 열심히 가꾼 열매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긴밀하게 맺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족, 이웃……. 함께 살아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추석 아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종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망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죽을 맛’ 나게 만듭니다. 색욕에 빠지는 것, 원수 맺고 갈라서는 것,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술에 빠져 사는 것, 노름에 미치는 것, 과소비하는 것 등입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열매와는 반대로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살 맛’ 을 가져다줍니다. 사랑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 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욕망과 성령의 중간쯤의 그 어느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맺은 그 열매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욕망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만큼 많은 이들의 삶은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만큼 많이 이들에게 천국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은 것을 만 번 입으로 외면 그 존재가 된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욕망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다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